

## 모든 사역을 지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 임직예배 드리며 직분자 13명 세워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은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윤창률 목사)가 지난 19일 임직 감사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분절적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임직예배에서는 최두순 씨가 명예장로로, 강문성, 정주욱 씨가 명예권사로, 홍성호 씨가 장로로, 민찬기, 강수태, 강영미, 김마이클, 김성림, 민희애, 박출리, 이지영, 이해경 씨가 안수집사로 각각 임직했다.

윤창률 담임목사는 “추수감사 주일에 13분을 임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열매”라며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준 성도들을 보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충성으로 달려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윤창률 목사)가 지난 19일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 ANC 온누리교회

임직자 대표로 인사한 홍성호 장로는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아가길 원한다”면서 “모든 임직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윤창률 목사의 인도로 한국인 장로의 기도 후에 김태형 목사(선랜드 ANC 온누리교회 담임)가 고린도전

서 4장 7절을 본문으로 “모든 사역을 지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사역하면서 괴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권면했다.

이어 윤창률 목사의 인도로 임직자 소개와 서약 후에 안수기도와 선포 순으로 13명의 임직자가 세워졌다.

ANC 온누리교회의 특송후에 박성호 목사(베이커스필드 ANC 교회)가 축사하고 크리스 최 목사(CRC 한인사역부 담임)와 조광수 목사가 각각 권면을 전했다며 김태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조셉 리 기자

### 감사에는 항상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 있어



얼바인온누리교회가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예배 패밀리 위십을 진행했다.

얼바인온누리교회(박신웅 목사)가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예배 패밀리 위십 'Spirit Wars: Return of the Family'을 19일 오전에 드렸다.

'감사의 기적'(시편 28:7)이란 제목으로 설

교를 한 박신웅 목사는 “감사는 늘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있다. 작은 감사가 터져나오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몸과 영, 그리고 우리 가치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 2면으로 계속

### 담임목사 4명 중 1명만 설교 피드백 받는다

담임목사 4명 중 1명만이 자신의 설교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드백(평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올해 초 한국교회 담임목사 8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등의 주요 결과를 14일 소개했다.

조사 결과, 담임목사 4명 중 1명만이 자신의 설교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드백(평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 전인 2012년 55% 대비 절반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설교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받는 목회자의 비율은 담임목사들 중 24%였다. 평가를 받는다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회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정기적으로 설교 평가를 받는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피드백을 누구에게 받는지 묻은 결과, '배우자/가족'이 75%로 가장 많았고, '교인' 11%, '교회 밖 동료/선후배/지인' 11% 등의 순이었다. '배우자/가족'에게 설교 평가를 받는다는 응답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다.

연구소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설교 피드백 받는 비중이 가족에게 더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49세 이하' 목회자의 경우 가족 이외로부터 설교 피드백을 받는 비중이 '60세 이상' 목회자보다 크게 높았다”고 했다.

또 '목회 코칭을 받은 적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는 항목에 47%의 목회자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목회 자문을 해주는 평신도가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 비율은 12%에 그쳤다. → 2면으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내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북미주 개척교회(CRC)  
 ALL NATIONS CHURCH  
**추수감사절**  
 Give thanks to the LORD

**Sunday Worship Services**

1부(Traditional Worship)	07:30 am	본당(Main Sanctuary)
2부(Blended Worship)	09:30 am	본당(Main Sanctuary) / Youtube Live
3부(Passion Worship)	11:30 am	본당(Main Sanctuary) / Youtube Live
GM(Disabilities Worship)	09:30 am	M913
ANCC(English Worship)	09:30/11:30 am	체육관(Gym) / Youtube Live

10000 FOOTHILL BLVD., LAKEVIEW TERRACE, CA 91342 / 818-834-7000 (담임목사\_김태형) WWW.ANCONNURI.COM



얼바인온누리교회에서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예배 패밀리 위십이 진행됐다. ©얼바인온누리 교회

1면 기사 "감사에는 항상..." 에 이어서 감사에는 항상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면서 "시편 28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고난 앞에서 긴 시간에 걸쳐 신음하며 호소하는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된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그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민과 격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될 줄 믿는다"고 했다.

이어 박 목사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철이 들어가지 감사를 배우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아이들은 가정의 형편을 알게 되면서 감사를 배우게 된다"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내가 채워질 때 감사하게 되지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새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 다윗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자"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얼마 전부터 교회에 낙서하는 아이들이 많아져 마음이 좀 불편했었는데, 다음세대의 목회자 중요한 시점에서 낙서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면서 "오늘 원망하는 일들과 자녀로 인해 속이 아프고 비즈니스의 터전으로 힘겨운 날들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것들

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모른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소중한 것에 감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감사는 욕심 때문에 사라진다. 불평으로 채워지는 모습이 있다면 욕심과 비교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내게 주신 작은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라인홀드 니버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 믿음, 소망, 사랑에 감사를 더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가 가장 중요한 큰 은혜이자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은혜와 축복을 나눴던 사람들에게 감사해 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을 다해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면 더 큰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을 믿는다"고 말씀을 마쳤다.

얼바인온누리교회는 '이웃을 위한 전도 초침 디너콘서트 'Wonderful Christmas: Irvine's Got Talent'를 오는 12월 16일 오후 5시에 열 예정이다. 12월 18(월)부터 21(목)까지 선교사 자녀 수련회 'Masterwork'를 비전홀에서 진행한다. 비용은 무료이며 대상은 미주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선교사 자녀이며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토마스 맹 기자

# 극단 이즈키엘,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

### 12/22~24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단편영화로도 제작, 최우수 단편상 신인 감독상 등 12개 상 수상

극단 이즈키엘이 오는 12월 22일, 23일 24일 세 번에 걸쳐 '마론인형'이라는 연극을 발표한다.

마론인형은 이즈키엘의 작품으로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은 몇 수십년 동안 떨어져 지낸 엄마에게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찾아와 그동안 서로 몰랐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의 복음이 한 인간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가는지 빛낸 작품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사랑'이다.

마론인형 연극은 초연 2013년 크리스마스 로 2018년 할리우드 프린지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평론가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당시 LA지역 스튜디오 스테이지 소극장에서 일반 관객을 상대로 공연을 진행,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낸 바 있다. 2019년 단편영화로 제작돼 로스 앤젤레스 필름 어워드, 인디엑스 필름 페스티벌을 포함한 15개의 영화제들에 공식 노미네이트 됐으며 그 중 '최우수 단편상', '신인 감독상', '여우 주연상', '최우수 아역상', '오리지널 스토리', '극본상' 등 총 12개의 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3년 창단된 이즈키엘은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그동안 기독교적 내용을 담은 '청년예수' '마루마을' '살로메' '문' '포물라3' '카덴자' 등 각종 뮤지컬, 연극 공연을 펼쳐왔다. 이즈키엘은 모든 공연 수익을 각종 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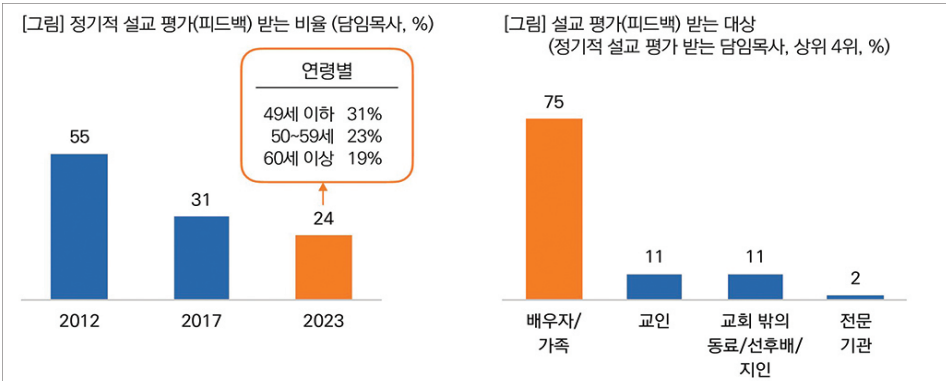


공연의 여주인공 김수연 배우(왼쪽)와 양숙형 배우(오른쪽). ©극단 이즈키엘 제공

교 관련 사역에 기부하고 있다.

공연은 한인타운에 위치한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에서 열리며 티켓 가격은 20불이다. 공연은 12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23일(토) 오후 7시 30분, 24일(주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민선 기자

구매: <http://ezekiel.la/>  
문의: [ezekieldrama@gmail.com](mailto:ezekieldrama@gmail.com).



2012년 목회자 중 55%가 '정기적 설교 평가를 받는다'고 응답했으나, 2023년 24%로 10년 사이 설교 피드백을 받는 비율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

1면 기사 "담당목사 4명 중 1명만..." 에 이어서 반면, '앞으로 목회 코칭을 받고 싶다'에 응답목사 10명 중 7명이 '그렇다'고 응답해 '목회 코칭'에 대한 비교적 높은 수용도를 엿볼 수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전후자 모두에서 49세 이하의 긍정 응답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50대와 60세 이상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연구소는 "목회 코칭 경험이나 자문 평신도 유무 모두 목회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젊은 목회자일수록 목회에 대한 피드백에 좀 더 열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목회 피드백과 교회 성장의 연관성

목회자들에게 향후 출석 교인 수에 대해 물은 결과, '증가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평균 71%였다. 그런데 ①정기적으로 설교 피드백을 받거나 ②목회 코칭 경험이 있거나 ③목회자문을 받는 평신도 전문가가 있다는 목회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목회자보다 10%p 이상 교인 수 증가를 더 높게 전망했다.

'향후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고 답한 구체적인 비율은 ①배우자/가족에게 피드백을 받는 경우 81%, 가족 이외에서 피드백을 받는 경우 86%, 피드백을 받지 않는 경우 67% ②목회 코치 경험 있는 경우 77%, 없는 경우 66% ③목회자문을 받는 평신도 전문가가 있

는 경우 80%, 없는 경우 7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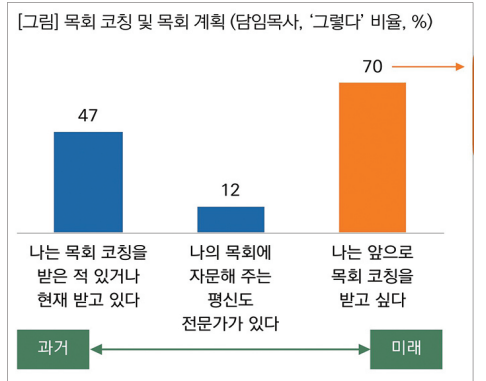
이에 대해 연구소는 "목회 피드백과 교회 성장이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연구소가 전국 개신교인 2천 명을 상대로 지난 5월에 한 조사에서 '교회 내 수평적인 문화가 있다'는 비율은 31%(매우 그렇다), '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율은 29%(매우 그렇다)였다.

이에 연구소는 "상당 수의 성도들은 아직 교회의 수평적 문화 형성과 사역 피드백 측면에 있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열린 자세로 피드백 받는 것 두려워 말아야"

연구소는 "피드백은 제공자와 수용자의 상호 이해와 교감,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한데,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교회가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려면 열린 자세로 피드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상호 간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수평적 문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설교 피드백같이 정성적인 평가인 경우 제공자나 수용자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믿음만한 목회 선배나 전문가 수준의 평신도에게 피드백을 받는 등 본인만의 피드백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목회자의 70%가 목회 코칭을 받고 싶다고 답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라고 했다.

연구소는 "피드백이 순조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피드백이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한'이라는 전제가 서로에게 있어야 한다"며 "또한, 문제의 원인과 대상을 '사람'이 아닌 '행위'에 맞춰 불편한 감정 소모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결과 개선을 위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피드백해야 한다"며 "두려움과 불편이 우려되어 건강한 피드백 문화를 거부한다면 한국교회의 성장은 그만큼 더디어 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Proverbs318Law.com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 미주평안교회 추수감사 “행복은 감사에서 비롯된다”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가 지난 19일(주일) 추수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철주 목사의 사회로 드러진 1부 감사 예배는 박상우 안수집사의 대표 기도, 송정명 원로 목사의 설교, 임승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유치부에서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가 함께해 온 가족 연합예배로 드러진 3부 예배에서 이삼량 장로가 대표로 기도하고, 참석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버니 흥 목사(EM목사)가 설교하고, 임승진 목사가 성찬식을 거행했으며, 이어서 송정명 원로 목사가 설교했다.

버니 흥 목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주변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학교, 공교육은 점차 무너지고 인종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제아내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실에는 게이 프라이드 깃발이 걸려 있다”며 오늘날의 시대가 로마서 1장 24-25절의 말씀과 같은 혼돈의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창조주가 아닌, 이 땅의 창조물을 위해 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각종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가르치며, 틱톡에서 오사마 라덴이 쓴 편지를 읽은 청소년들은 9/11 테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가 19일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다. ©미주평안교회 제공

러를 좋은 일이었다고 말하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좋은 일이었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거짓말에 현혹되고 있다”며, 이 모든 일이 한 가지 진리,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깨어진 자들”임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가장 감사하는 것을 나누고 싶다고 하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스러운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법적으로 의롭다 하

신 칭의 사건(롬 5:8~10)에 대해 설명했다.

송정명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골로새서 3장 15절-17절)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 목사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절기-유월절, 맥추절(칠칠절), 수장절(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도록 하였고, 현대 개신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 감사절 세 가지 절기를 지킨다”며 열 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에서 감사를 돌린 사람

은 한 명 뿐이었음을 언급하며, “감사는 행복과 관계가 깊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신 10:13)고 하셨다. 행복은 명예를 얻거나, 권세를 얻거나, 출세를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에서 비롯된다”며 말했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전 교인이 칠면조로 식사를 하면서 친교했다. 김민선 기자

## 사우스베이목사회 11월 정기 모임



사우스베이목사회 11월 정기 모임 후 단체 사진. ©기독일보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고창현 목사)가 15일(수)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에서 11월 정기 모임을 갖고 예배와 친교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돼 남상권 목사(남가주어노인팅교회)의 대표기도, 이황영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황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전도서 7장 13~14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목회자들에게 큰 은혜를 선사했다.

이 목사는 “인간들은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잘못 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잘못된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많은 잘못을

지니고 살아왔다. 우리는 또, ‘평안하게 살아도 피곤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합심기도 시간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동진 목사의 축도로 모임이 마무리 됐다. 이후 성화장로교회는 참가한 목회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김민선 기자

## 제28회 남가주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



11월 12일(주일) 오후 6시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에서 제28회 남가주장로성가단(노수길 단장, 장진영 지휘, 윤경미 반주) 정기연주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독일보

11월 12일(주일) 오후 6시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에서 제28회 남가주장로성가단(노수길 단장, 장진영 지휘, 윤경미 반주) 정기연주회가 개최됐다.

김영완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는 “남가주 장로성가단은 여러 어려운 국가들을 방문해 아픔을 같이 보듬고자 노력했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축하했다.

노수길 장로는 “앞으로 성가단 발전을 위해 새로운 단원을 영입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태형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남가주 장로성가단이 어지신 목사(Tell Me My Savior), 사랑이 예 오셨네(Love Came Down for Me), 모퉁이 돌(Cornerstone)을 불렀고, 카마 합창단이 I lift Up Mine Eyes(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Prayer of St. Rfanis(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불렀고, 이어서 남가주장로 성가단, 미주 여성 코랄, 중창팀, 혼성 합창팀의 찬양이 이어졌다.

이번 공연에 찬조 출연한 카마 어린이 합창단(KAMA, Korean American Music Academy, 지휘 김유선, 반주 김형욱)은 2학년부터 12학년 아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1989년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34년간 미주 LA지역 한인 2세의 음악교육을 해왔다.

ANC온누리교회, YNLA성영락교회, 구세군나성교회, 은혜와평강교회, 시온성결교회, 베델교회, 사랑의 빛선교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등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후원했다. 주디한 기자

문의: 213-700-0053, elderschoir.com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AWD**

**NEW 2023 HYUNDAI Ioniq 5 SEL RWD**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4 HYUNDAI Kona SEL**

**NEW 2023 HYUNDAI Santa Fe SEL**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L RWD**

**\$299** 10,000 mile/year For 24 Months \$6,965 due at lease signing (MSRP + TAX)

**NEW 2023 HYUNDAI Ioniq 6 SE RWD**

**\$7,500 Lease Cash Availabl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미라클 블레싱,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셔”



주님의영광교회가 주최한 미라클블레싱에서 남상권 목사(남가주 어노인팅 교회)가 요셉을 잊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 전했다. ©주님의영광교회

주님의 영광교회는 10월 29일(주일)부터 11월 18일(토)까지 21일간 미라클 블레싱을 개최하며 2023년을 돌아보고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미라클 블레싱에서는 신승훈 담임목사를 비롯해, 김동기 목사(부천 광음교회), 최형규 목사(생수의 강 교회), 남상권 목사(남가주 어노인팅 교회), 이나토미 유이치로 목사(가스펠 실로암 교회), 강신정 목사(논산 한빛교회) 등이 강사로 섰다.

11월 7일 미라클블레싱 집회 열번째 날 강사로 선 남상권 목사(남가주 어노인팅 교회)는 창 40장 1-8절을 본문으로, 요셉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기억(자카르)에 대해 전했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의 마음은 어떠 했을까? ‘나는 이렇게 끝나 보다, 나는 여기 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망각과 달라**  
남상권 목사는, 이 침묵의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렸거나, 그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40장 1절 말씀,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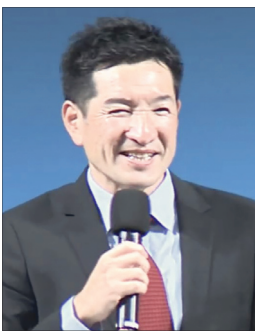
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한 가지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등장한다.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있게 되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요셉의 부탁은 잊혀지고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간다.”

**하나님께 우는 자, 사람 앞에 울지 않는다**  
“제 인생에서, 제 목회에서 결코 놓치지 않는 말씀 하나가 있다. ‘하나님께 우는 자, 사람 앞에 울지 않는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다른 말 안 해도 괜찮다, 그냥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찌니’(시편 146:3)라고 하셨다.”

**요셉의 감옥 시기, 희소스족이 애굽을 점령**  
그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표정을 읽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며, 2년 동안 요셉을 감옥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설명했다.  
“왜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우셨을까?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 잊혀졌던 그 날의 기억을 2년 후에 다시 살려 놓는다. 왜 2년 동안 가두어 두셨는가? 학설에서는 북동쪽에서 애굽으로

로 선택 계통의 희소스족이 내려왔다고 본다. 애굽이 희소스족에 의해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된다. 지금 이 바로는 선택 계통의 희소스 왕족이다. 하루 아침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 이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숨겨두셨고, 사실 요셉은 안전하게 보호 받았다. 우리는 일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체를 보신다. 그를 역사에 끄집어 내 진두지휘 하게 하는 때가 아니라, 감추셔야 했던 때였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언제나 신실하다. ‘내 삶이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나?’라는 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 몇 먹이 여인은 자기 자식을 잠깐 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  
그는 “하나님의 기억 ‘자카르’(zakar).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의 자카르가 우리 심령에 박히게 되길 소망한다”며 말씀을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 이나토미 유이치로 목사 “표적을 구하는가, 기적을 구하는가”



이나토미 유이치로 목사 (가스펠 실로암 교회)

2023 미라클 블레싱의 11번째 날인 11월 8일 집회를 이끈 이나토미 유이치로 목사(가스펠 실로암 교회)는 요한복음 2:1-11절을 본문으로,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설명하며, 크리스천의 신앙이 기적만 쫓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시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된 사건을 의미한다”  
“그럼 표적은 무엇일까?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sign)이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건 자체는 기적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목하는 것이 세메이온이다.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으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이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표적이다.”  
기적은 일어났지만 표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다. 새벽예배에서 매일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 무슨 기도제목인지 물어보았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기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그는 그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더이상 새벽예배에 나타나지 않으셨다. 주일예배에도 나오지 않아서 전화를 해 보았다. ‘아기가 생기니 교회 가기 힘들어요, 아기 태어나고 나서 오겠습니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아기가 다 크고 나서 가겠습니다’라고 하셨다. 기적은 일어났지만, 표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요한복음 6장 14~15절에, 두 무리가 있다며 한 무리는 예수님을 그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실 분으로 여겼고,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라는 것을 깨닫고,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간 자들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유명하다. 일본의 대

표적 만화 도라에몽이 있다. 도라에몽의 호주머니에서 모든 필요한 게 다 나온다. 50년 가까이 된 만화인데, 변화지 않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주인공 노비타는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이다. 문제가 생기면, ‘도라에몽 도와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도라에몽이 바로 도와준다. 그러다보니 주인공이 그대로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도라에몽으로 여길 수 있다.”  
“우리 어머니가 알콜 중독이었다. 정말 희망이 없었다. 교회에서도 버림 받고,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다. 집에 있던 티비를 없애고 그 자리에 커다란 십자가를 걸고, 오늘부터 여기는 예배당이라고 하셨다. ‘티비는 어디서 봅니까?’했더니, ‘안 봐도 돼, 십자가를 보라’고 하셨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신다.”  
이나토미 유이치로 목사는 “내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바울의 고백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화인을 찍어 주셨고 마귀보다 더럽고 치사하고 누추한 내 마음 속에 와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 다음호에 계속**

**아버지 밤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 보험의 중요성!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험이 필요할 때와 정직한 Agent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싼 가격에 현혹되어 잘 못된 결정을 내리시는 실수는 범하지 마시고 올바른 **Agent와 Insurance**를 찾으십시오!  
저희는 최고의 **파머스 보험**과 Service 그리고 정직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FARMERS INSURANCE**

**Kenneth Lee** Lic. #0809178  
**213-368-2950**  
3455 Wilshire Blvd. #465., LA, CA 90010

◎ 센터메디컬그룹

최우수 등급  
메디컬그룹

# 99세까지 88하게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메디컬 서비스의 시작

시니어만을 전문으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는 센터메디컬그룹이 유일합니다

## 1 시니어 전문 의료 네트워크

2,000명이 넘는 우수한 실력의  
의사와 다양한 의료진!

## 2 남가주 최다 입원 가능 대형 병원

80여 곳이 넘는 병원들에서  
편하게 수술 및 입원 치료!

## 3 초고속 당일 병원 허가서

미국에서 가장 빠른 리퍼럴  
시스템과 승인절차!

## 4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한국인 기사 & 그룹 자체 차량으로  
무료 셔틀 서비스 제공!

문의



714-980-3532



cipa@popmso.com

◎ 센터메디컬그룹

QR코드를 찍어주세요!  
www.centeripa.com



# 이은상 목사, “태초부터 영원까지 끝나지 않는 이야기”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8일째인 11월 8일(수) 달라스 세미한교회의 이은상 담임목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사 40:8)”를 본문으로, <네버 엔딩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태어난 지 4일 만에 ‘이 이야기는 일주일조차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좋다’는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수술을 받고, 어머니의 서원기도로 이틀 만에 퇴원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큐베이터에 손을 얹고 한 안수기도로 살아나**  
“제가 태어나자마자 4일 만에 병원으로 갔다. 일주일을 못산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부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어도 좋으니 살려달라고 하셔서 연명치료를 들어갔다. 어머니가 그때까지 교회를 못 다니셨다. 왜냐하면 아버님 쪽이 무속신앙 집안이었고 제 인큐베이터에는 부적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할머니께서 엄마를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셨다. 어머니가 그날은 용기를 내어서, 몰래 등록을 해 놓았던 교회의 목사님에게, 한 번만 와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 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공항으로 나가는 참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공항 갔는데 비행기가 취소되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셨다. ‘한 집사,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네. 애 정말 살면 주의 종으로 바칠 거야?’ ‘식물인간이어도 되니까 살려만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종 기꺼이 바치죠.’ 그리고 이를 후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이은상 목사는 하나님의 손 지문이 묻어 있는 이 첫 기적의 사건을 전하며, ‘주의 종’이라

는 어머니의 서원기도가 그의 정체성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목사보다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그는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 각종 영어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그리고 외교에 진학하고 첫 시험을 치른 그는, 삶의 진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게 된다.

**새로운 꿈 설정, 주의 종 대신, 강남 아파트**  
“첫 시험, 반에서 37등을 했다. 저는 충격을 받았다. 정말 숨고 싶고 창피해서 자퇴를 하고 싶었다.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들끼리 스카이 캐슬 안에서 푹푹 묻쳐서 자라 온 아이들, 강남 8학군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었다. ‘너는 지방 아이’,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선교사, 주의 종 되기로 마음먹었던 아이가, 갑자기 ‘나 어른 되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어야 되겠다. 내 아이는 강남 8학군에서 키워야겠다. 이 수모를 내 아이가 겪지 않게 해야겠다’가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때부터 성공을 추구하며, 높은 곳 더 높은 곳을 추구했다. 제 꿈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었다.”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간 그는 도서관이나에서 쪽잡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높은 곳 더 높은 곳을 위해서. “100% 나를 위해 살았다. 졸업 후에도 대기업 연구소, 4대 금융기업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에 스카우트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다 2008년 금융 위기,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전, 그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일할 때,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를 한국 정부와 은행들이 인수하는 프로젝트에 뛰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그를 강타했다. 그가 다니고 있던 증권회사가 팔렸다는 소식이였다. ‘리만 브라더스가 부도가 났다’는 신문 헤드라인에서, 돈의 마운틴이 무너져



2023 다니엘 기도회 8일째 날 강사로 선 이은상 목사(달라스 세미한교회)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 어머니와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그 병실을 보여주셨다. 눈앞에 그 상황 재생되었고, 그제서야 어머니의 서원 기도가 아닌, 그의 입술에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이 나왔다.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만나시자마자, 새신자 반을 저에게 다 맡기셨다. 교회에 새로운 뉴욕커피들이 왔다. 파슨스, 줄리어드, 콜롬비아, NYU 출신들, 굉장히 멋지고 예쁘고, 절대로 교회 안 올 거 같은 친구들이 저에게 붙들렸다.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뱅크 스타일로 했다. 증권사 스타일로 했다. 엑셀 파일로 성도들을 정리했다. 관리를 확실히 했다.”

그가 10분만 예수님을 전해도, 그 청년들이 눈물 콧물 쏟으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다. 한국에서 스포츠 카를 타고 다닐 때도 느껴보지 못한 큰 기쁨을 느끼며, “이것이라면, 너무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저를 정치인, 높은 관직의 리더,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바라셨다. 당시 동아시아 지역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까지 붙은 상태였다. ‘정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까’라는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귀국 전에 전직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들었다. ‘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무너질 수 있구나’란 생각에, 정치 마운틴도 무너졌다.”

**낮에는 신학생, 저녁에는 주식맨**  
포트 워스에 있는 신학교에 진학했을 때, 지역 교회에서 부름 받아 부교사로 사역하기 시작했다. 증권가에서 일하던 그에게 첫 월급 500달러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식 재능’을 씌려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낮에는 신학생, 저녁에는 주식을 하며 지냈다. 어느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기까지 와서 널 믿냐’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두 팔았다.

이은상 목사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마지막 산에 대해 말했다. “나(me) 마운틴. 나라는 산. 이게 굉장히 잘 안 무너진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게 네버 엔딩 스토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 주시는 네버 엔딩 스토리가 또 있다.” 그는 “하나님의 손지문이 많이 묻어 있는 인생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하시나요?”라고 비행기에서 무릎꿇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너를 부른 것처럼 사명을 줄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올해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 1만 6천여 개 교회와 665개 이민교회가 함께 했다. 주디 한 기자

## ‘연말을 따뜻하게, GBC 라디오와 함께!’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2023년 연말을 앞두고 한 해 동안 미주복음방송에 사랑을 보여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라디오를 선물하는 ‘나눔 On, 라디오 On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나눔 On, 라디오 On 캠페인’은 ‘빛과 생명의 소리’인 미주복음방송 AM1190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에 라디오를 보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라디오를 구입할 수 있도록 30불 상당의 라디오를 10불에 제공, 미주복음방송이 20불 매칭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선 사장은 “스마트 미디어 기기들의 등장으로 라디오가 점점 잊혀지는 세대이지만, 사실 라디오는 긴급 상황 시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창이다.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이나 독거 어르신들에게 연말 연시에 드릴 수 있는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GBC 라디오는 11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개인은 물론 교회나 기관의 단체주문도 가능하다. 라디오는 미주복음방송을 방문해 픽업할 수 있으며 픽업 일정은 12월 1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신청: <https://forms.gle/wUy5G3JaCfGPhBLc6>  
문의: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

## 월드미션대학교, 예장 통합 증경 총회장 신정호 목사에게 명예신학박사 수여

월드미션대학교가 지난 10월 29일 전주 동신교회에서 예장 통합 증경총회장 신정호 목사(동신교회 시무)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신선묵 부총장의 사회와 임성진 총장의 학위수여와 격려사, 짐 아담스(Jim J. Adams) 목사와 한남대 총장 이광섭 장로와 총회 김보현 사무총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임성진 총장은 “전주동신교회를 세워 기도와 헌신으로 성장시키고 예장 통합 총회장으로서 선교적 지도력을 발휘했으



명예신학박사 수여. ©월드미션대학교

며 월드미션대학교와 협력해 기독교 교육에 공헌한 점을 인정해 신정호 목사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 Churches for All Generations

가정, 직장, 이웃이 선교지입니다.  
성도들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들

“여호와께 돌아가자” “Let Us Return to the Lord”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He has torn us to pieces but he will heal us; he has injured us but he will bind up our wounds (Hosea 6:1)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예배시간**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일예배 1부 오전 10: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www.smkc.us](http://www.smkc.us)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310.502.9999

김경렬 목사

**사이프레스 VINE CHURCH**



**예배시간**  
주일예배 KM 오전 11:30  
주일예배 EM 오후 1:30  
[www.vinesocal.com](http://www.vinesocal.com)  
21732 Verne Ave, Hawaiian Gardens, CA 90716  
(T)714.686.1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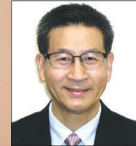
조진용 목사

## Generations to Generations

Mentoring Pastors



KM 조형수 목사



EM 채영일 목사

러빙워십 X 제이어스  
**YESHUA**  
*yeshua*  
 여호와께 돌아가자  
 HOSEA 6:1-3



**LA**  
**THE NOVO 극장**  
**12/17 (일) 7PM**

800W OLYMPIC BLVD A335  
 LOS ANGELES CA 90015

티켓구입처  
[www.axs.com](http://www.axs.com)



**OC**  
**애나하임 GROVE 극장**  
**12/22, 23 (금, 토) 7PM**

2200 E KATELLA AVE  
 ANAHEIM CA 92806

티켓구입처  
[www.ticketmaster.com](http://www.ticketmaster.com)



티켓 \$50 / \$40 / \$30  
**티켓 문의 (213) 357-1565**

주최 | 미주CBS방송    주관 | 러빙워십

협력기관 | 연합뉴스 TV, 미주 중앙일보, 미주 한국일보, 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CGN TV, 우리 방송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평양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설립의 정치적 배경

1988년 제 24회 '서울올림픽'은 동서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의 전환되는 징조와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냉전 시대의 상징인 분단국 한반도에서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160개의 국가들이 참여함으로 화합의 한 마당을 이루었다. 이는 선교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매우 의미있는 세계적인 지구촌의 축제의 한 마당이었다. 한국인들은 세계로 나아 갈수 있는 세계 속의 한국인이 되었고, 한국 교회는 이로 인하여 공산권과 회교권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선교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북한은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올림픽 축제를 방해하고 맞서기 위해 1989년에 제 13차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여 177개국의 청년들이 평양에 모여 세계평화축전을 거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북한도 건국 이래 가장 큰 국제 행사를 치렀다. 결과적으로 북한도 세계 속의 나라인 것을 드러내었고, 북한 정권은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1988년에 평양 봉수교회와 평양 장충성당을 건립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1989년에는 칠골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의 현금을 모아서 1992년에 헌당하였다. 칠골 교회는 김일성이 어린 시절 그의 모친 강반석과 같이 교회를 다녔었다. 그 사실은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책에서 김일성 자신이 고백하였다. 이 교회는 김일성의 외조부 강돈욱이 해방 전에 개척한 교회였고 칠골은 김일성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는 곳이었다. 김일성은 자신이 다녔던 그 교회 위치를 찾아내어 그 자리에 건축하도록 함으로 헌당되게 된 것이다.

1994년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칠골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다. 북한 정권은 교회를 대외적 창구로 적극 활용하였고 이러한 종교 정책의 변화는 북한 지하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의욕과 자극을 주었으며,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종교 제한을 완화시켰다. 이러한 대외적 종교의 새로운 흐름에 지하성도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분명한 사실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북한 정권의 폐쇄적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대외 종교 정책 외에도 다방면으로 변화와 자극을 주었으며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도 세계적 큰 행사로 새로운 각성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1989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이후 더욱 적극적인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한인 목사들과 세계 기독교 단체들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전반적인 종교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전략적 변화를 추구한 것에 불과하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나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 대한 실례로서 노동당에서 지정한 교인들만 평양의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교인이 될 수 있었을 뿐, 그의 일반 주민들은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 교회의 찬양대도 정부로부터 선발된 평양 음대 성악부 출신들이었다.

북한의 종교에 대한 대외적 변화는 지속되었다. 1990년 4월 조선 기독교교연맹은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의 협력으로 1만권의 성경책과 찬송가를 홍콩에서 인쇄, 발행하였다. 이는 일반 개인의 사용 목적이 아니라 제한된 공적 예배인 칠골교회와 봉수교회에서만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도 없었다.

1992년 4월에는 종교 활동에 관한 헌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에는 종교 선전을 불법화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종교 선전의 자유를 허용할 것과 종교적 목적을 위한 건축을 허락하며 종교 활동을 허용할 것을 추가했다. 이 헌법 개정은 김일성에 의해 이루어진 종교 정책의 변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또 다른 목적은 북한에 종교의 자유를 합법화 하는 법 조항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비판을 모면키 위한 것이었다.

기독교 최초의 변증가 "순교자 저스틴(로마식으로 유스티누스라고 부른다)은 2세기 기독교 대표적 변증가였다. 저스틴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었던 교부로 그 어려운 시절에 많은 저작물을 남겼다. 하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는 "제 1변증서", "제 2 변증서",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 등 밖에 없다. 그의 저작물은 기독교 변증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자료요 동시에 2세기 교회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저스틴은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를 그리스도교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기독교 철학자다. 그는 그리스의 우주적 로고스를 그리스도에 연계시키는 아주 독창적인 사상가였다. 또한, 그는 자신을 철학자라고 주장하면서 철학자들이 입는 외투(pallium)를 걸치고 순회 설교자가 되어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진리를 강론했던 독특한 전도자였다.

저스틴의 주장과 이론들은 후대 그리스도교 변증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 테오피루스(Theophilus), 터툴리안(Tertullian), 펠릭스(Minucius Felix) 등의 신학과 기독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저스틴은 이단들의 폐해를 알았고 이단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영지주의(Gnosticism)와 군주신론(Monarchianism), 그리고 오리겐주의(Origenism) 등에 맞섰다.

저스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인근에서 살았던 그리스인 가정에서 출신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저스틴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익숙했고, 고전 교육을 받았고, 식지 않는 진리에 대한 갈증 덕분에 그 시대의 철학과 사상들을 다양하게 익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스토아주의(Stoicism), 소요학파(Peripateticism), 피타고라스학파(Pythagoreanism), 그리고 플라톤주의(Platonism)를 섭렵했다. 그런데 그가 여러 철학을 섭렵했지만, 그 어떤 철학도 저스틴의 영적 혹은 심적 갈증을 해결시켜주지 못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련하여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 철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학을 추종하는 자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등록금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피타고라스 철학자들은 음악, 수학, 그리고 기하학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 영적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한 유스티누스는 방향하게 되었다.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그의 마음이 그를 기독교로 이끌었다.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철학들에 대한 공허함을 가진 저스틴은 132년 바닷가를 거닐다가 어느 날 한 노인을 만났다. 그런데 그 노인은 저스틴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우쳐 주었다. 그 노인은 철학의 무능력에 대해 알려 주었다.

그 노인은 플라톤의 생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정확하게 알려 주었다. 그 노인은 철학자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성만을 통한 완전한 영적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의 고대 선지자들에게 대해 알려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 유스티누스는 그 대화 후에 바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전승에 의하면 저스틴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자신은 철학자고 자처하며 살았다. 기독교 철학자임을 자처했던 그는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AD150년경에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로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였고 그의 박식함, 다양한 관심 그리고 이단에 대한 단호한 태도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고 그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 되었다.

저스틴의 글들을 보면 과거 자신이 플라톤 철학자임을 내세웠던 것처럼 스스로 기독교 철학자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교와 그리스(헬라) 철학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말은 후대 테르툴리아누스와 같은 사람이 '아테네와 예루살렘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논쟁을 낳은 이유가 되기도 했다.

저스틴의 저서 중 일부는 유실되었다. 그러나 짧지만 중요한 변증적 저서 세 편이 남아 있다. 저스틴의 "제1 변증서"는 아마 155년에 순교한 폴리갑 감독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저스틴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담대하고 강경한 어조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다 공정하게 대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던 상황에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재판의 과정도 없이 즉결 처결해 버리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변했다. 당시 그의 어조는 아주 강했다. 폴리갑 감독의 처형 후 그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들고 황제를 찾아갔다.

저스틴이 황제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렇다. "만일 우리가 악한 자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혹은 사악한 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학대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 해도 우리를 해치는 말아주시오"라고 요청하였다. 이 글이 폴리갑의 사형 직후에 황제에게 전한 항변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강하다.

순교자 저스틴은 162년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 로마에서 사형을 당했다. 그러나 그의 사형 이유는 아직도 모른다. 그의 "변증서"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암시해 둔 대목이 있다. 그는 로마의 당국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고 항변하는 공개서한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서한들을 로마 황제와 당직자들이 읽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복음을 당당하게 변증해야 함을 천하에 천명했다. 그가 이런 서신을 황제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과 도전이 되었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지를 보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복음으로 당당한 그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도전을 전한다.

■ 강태광의 기독교 문학 산책



순교자 저스틴의 변증서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승인
- 기독교대학(ABHE) 목회학박사(M.Div.)
- 신학박사, 신약학사, ES,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만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1-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라인 수업
- CANVAS 기반 온라인 수업
- 실시간 화상 수업
-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도 수업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학자금 지원 (Coal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사역목사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과정, 상담사역, 신학교, 광복기독교대학, 전문교육학, English M.Div.
- 박사 | 신학박사, 신학철학박사

주소: 15605 Carner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입학문의: (626) 926-1023, ext. 300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리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교(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a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신학교 석사
- Th.M 신학석사
-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 \*\*\* 전기세 50~90% 절감 \*\*\*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강준민 칼럼

### 뜻밖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아브라함 인물 강해설교를 하면서 당황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뜻밖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만약 사라를 아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라를 보고 그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바로가 아리따운 사라를 그의 궁으로 이끌어 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왜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창 13:2)고 기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

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은과 금이 풍부하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것은 뜻밖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할 때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사라 때문에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맡으십니다. 잘못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는 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 선지자로 세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심으로 닫힌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들로 출산케 하십니다. 사라 때문에 죽을 뻔한 아비멜렉이 그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종들을 선물로 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그의 집에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풍성한 물질적인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은 뜻밖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책망보다 은혜가 사람을 더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책망을 통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압도적인 은혜로 그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가 직면했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도 뜻밖의 은혜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기도를 대신 받습니다.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만나 축복해 주십니다. 뜻밖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 야반도주를 합니다.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추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창 31:29)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해하려는 라반의 손에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을 애굽의 국부총리로 세워 그를 공경하게 하십니다.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뜻밖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뜻밖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뜻밖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룓,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간음자요 살인자였던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뜻밖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변화된 것은 그들의 도덕이나 수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뜻밖의 은혜입니다. 누가 거짓말한 아브라함과 야곱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기생 라합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뜻밖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져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뜻밖의 은혜를 받으며, 그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뜻밖의 은혜를 받으며 왕의 길을 계속 걸을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뜻밖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김한요 칼럼

### 어른과 끈대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연세 드신 분들에게 따라붙는 이름은 ‘어른’ 아니면 ‘끈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맘에 100% 만족을 주는 아들이 없겠지만, 그때 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되 잔소리가 아닌 동정과 격려, 그리고 희생의 롤모델을 보여주는 존경의 대상이 ‘어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흠이 발견되는 순간 여과 없이 비판을 쏟아내고, 나의 시절에는 소위 ‘라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모멸감을 주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자라나는 아들을 짓누르고, 충고한다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추궁을 하는 아버지는 ‘끈대’일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어른과 끈대의 구별 법은 굳이 말하자면 그들의 말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선배보다 후배가 더 많아진 현역 목사로 어쩔 수 없이 끈대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목회자들을 모아 놓고,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작심하고 후배 목회자들을 야단을 쳤습니다. 그 이후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것은 아닌지, 소위 끈대 짓을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

게 됩니다. 다행히 후배들이 더 어른스럽게 야단을 받아주어서 선배의 면을 세워주었습니다.

최근 어느 원로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지면에서 대했습니다. 그때 ‘어른이 사라졌다’는 표현을 기자가 썼는데, 맘에 와닿는 메시지였습니다. 가정에만 어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계에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길을 보여주시는 혜안의 어른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30살에 매사추세츠주 앰허스트의 학원 목회에 뛰어들어 저는 주위에 한인교회도 없는, 즉 ‘어른’이 없는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소위 박사 공부하는 똑똑한 학생들과 2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심방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지뢰밭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마침 예배 드리던 미국 교회의 나이 지긋한 담임목사님께 찾아가 목회의 고민을 털어놓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감사할 목회 현장을 자주 말해 보라는 말씀에 억지로 감사 조건을 찾다가 저절로 치유와 위로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 우리 아들의 이름을 그 목사님의 이름을 본떠 짓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가는가? 끈대가 되어 가는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기로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뒷방 노인이 되겠지만, 후배들의 입장에서 자주 생각해 보고, 뒤쳐지지 않도록 책 한권 더 읽고, 잔소리 보단, 밤 한번 더 사주며 격려해 주다 보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는 ‘어른’으로 아름답게 나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aga** MEDICARE OPTION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탕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http://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mailto:junimmedia@gmail.com)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야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야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초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찰떡 오반떡

**슬팍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풍부와 빈곤에 처할 줄 아는 믿음의 감사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추수감사절은 미국 기독교 정신의 상징과 같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피했던 기독교인들이 또다시 유럽의 타락과 핍박을 피해 신대륙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며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신대륙의 소망을 품고 대서양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1620년 9월 102명의 첫 번째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66일간의 어려운 항해를 거쳐 11월 21일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괴혈과 추위 등으로 반 수 이상이 죽을 정도의 힘든 광야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 가장인 남편이 죽은 가정, 사랑했던 아내가 죽은 가정, 희망이었던 자녀들이 죽은 가정, 신앙의 기둥과 같았던 부모가 죽은 가정 등, 슬픔과 아픔이

작은 배를 가득 덮었습니다. 그나마 천신만고 끝에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추운 겨울을 굶주림 가운데 간신히 넘기고 알지도 못하는 풍토병으로 남아 있던 가족들을 잃으며 죽을힘을 다해 농사를 지었지만, 노력과 기대에 못 미치는 적고 초라한 수확을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그 초라하고 적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감사를 실천했습니다. 숲에서 잡은 칠면조와 농사로 결실한 투박한 호박과 옥수수 등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사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박국서에 나온 참 신앙의 고백이 실천되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3:17-18). 그리고 미국은 오늘날까지 참 감사의 상급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복을 만들었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

의 선순환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삶이 그 옛날과 같아질 수는 없지만, 청교도 신앙의 감사 믿음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감사의 믿음은 정답을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살아가므로 증거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정답을 아는 것과 감사로 살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내 삶이 풍부가 아닌 궁핍에 처하거나, 배부름이 아닌 배고픔을 만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불경기나 질병과 사망보다 크신 분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짧은 여행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인생은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믿음을 증거 하면 영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람!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  
추운 겨울을 겪고 풍토병을 앓고 가족을 잃고  
기대에 못미치는 초라한 수확에도 그들 양에 있던  
감사의 믿음



구봉주 칼럼

감사 감사 또 감사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신앙에 있어 감사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출애굽 했던 모세를 비롯하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늘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사와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

사한 일들을 떠올리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을 붙드는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개인적인 감사의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잠시 이 칼럼을 읽으시는 동안, 과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과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한 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저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인생이 주어진 사실 자체가 축복이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2) 바르고 정직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자라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불화 있는 가정에서 자랐으나, 아버지 어머니는 바르고 정직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3) 23살 때, 방황하던 저를 신비롭게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던 저를 개인적으로 그것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적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4) 신앙적인 코드가 잘 맞는 사랑스런 아내와 두 딸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내와 두 딸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5) 상처로 가득했던 제 마음을 조금의 앙금도 없이 깨끗이 치유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과정 없이 아예 제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마치 수술하듯이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6)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써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결코 사용하지 않을 저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7) 아직 미성숙한 목회자인 저를 이렇게 좋은 감사한인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에 목회로 사용하셔도 감지덕지라 생각했던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8) 신앙과 목회의 롤모델이 되실 뿐 아니라, 영적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적 위로와 도움이 없어, 영적인 고와 같은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시간과 지면이 허락한다면, 감사제목을 100개 이상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보니,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사했던 일, 지금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로 눌려온, 마음에 다시 기쁨과 활력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작용

**이너비스의 약속**

- ✓ 믿을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제품입니다.
- ✓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시설에서 제조합니다.
- ✓ 제3자 실험실 테스트로 라벨 내용과 제품 성분이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 ✓ FDA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Produced in FDA Registered Facility

**구매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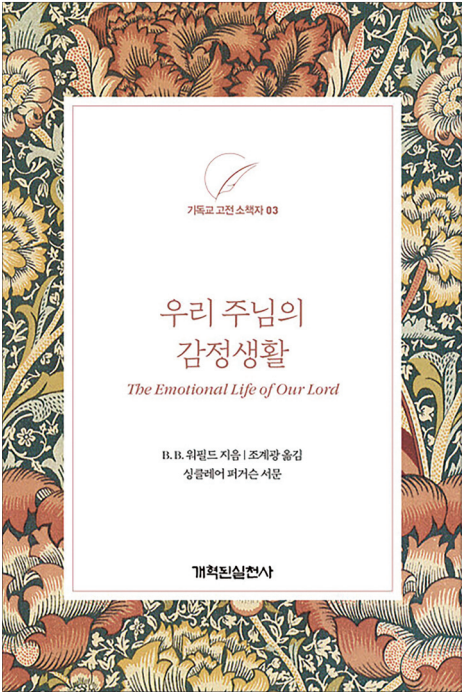
**기독샵**

전화구매: 213-434-1170  
현장구매: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b>1 물 없이 씹어먹는 애플 사이드 비네거</b> 60 츄어블 타블렛 \$13.99 애플 사이드 식초와 유산균 및 여러 종류의 비타민으로 구성되어, 체중 감량, 해독, 콜레스테롤 저하, 소화 불량 예방, 에너지 증진, 신진대사 촉진 등에 탁월합니다.	<b>2 물 없이 씹어먹는 간 회복제</b> 60 캔디 타블렛 \$16.99 간 건강에 가장 좋은 조합인 밀크슬과 강황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모링가 및 다양한 비타민들로 구성되어 간 건강, 소화력, 독소 제거, 숙취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b>3 에너지 &amp; 무드</b> 60 캡슐 \$9.00 에너지와 건강한 기분을 도와주는 다섯 가지 핵심 원료인 마그네슘, 비타민 C, 마카, 아슈와간다, 루마라 푸아마로 만들었으며,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b>4 목 넘김이 쉬운 비오틴 5,000mg</b> 120 베지터블 캡슐 \$9.99 탈모 예방과 피부질환 개선 및 손톱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b>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b> 120 베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 햇빛을 받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 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b>6 비타민 C500</b>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 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b>7 물 없이 씹어먹는 비타민 C 츄어블 500mg</b> 120 츄어블 타블렛 \$14.75 쉽고 빠르게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B2, B6가 함께 들어있어 육체 피로와 면역력을 개선해 주며, 기미와 주근깨 예방에 좋습니다.	<b>8 엠에스엠 2,000mg</b> 150 타블렛 \$10.99 활력있는 생활로 돌아가세요! MSM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 회복, 피부 노화 방지, 상처 치유 촉진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b>9 면역력</b>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b>10 간 건강 피로 회복제</b> 120 베지터블 캡슐 \$19.99 한국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함량의 살리마린(밀크씨슬)을 포함하였으며, 검증된 비타민, 마네틴으로 제조하여 간 건강뿐만 아니라 피로까지 회복시켜 주는 탁월한 제품입니다.	<b>11 프리미엄 혈액순환</b> 150 캡슐 \$19.99 검증된 다양한 비타민, 아연, 니아신, L-아르기닌, L-시트룰린, 마늘, 인삼, 허브 등 혈액순환에 좋은 고급 원재료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b>12 타우린 500 플러스</b> 180 캡슐 \$14.99 신경세포와 신경계를 보호하고 진정시켜 심장, 두뇌 등을 건강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C와 작용하여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다. 항염으로 6개월간 복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다.
		<b>13 피쉬 오일</b> 120 소프트젤 \$13.75 높은 품질의 피쉬 오일을 사용하였으며, 다량 함유된 오메가3는 심장과 심혈관, 눈 건강의 중요 요소로 사용됩니다. 또한 만성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

[동정, 분노, 기쁨]

# 예수님은 33년간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표현하셨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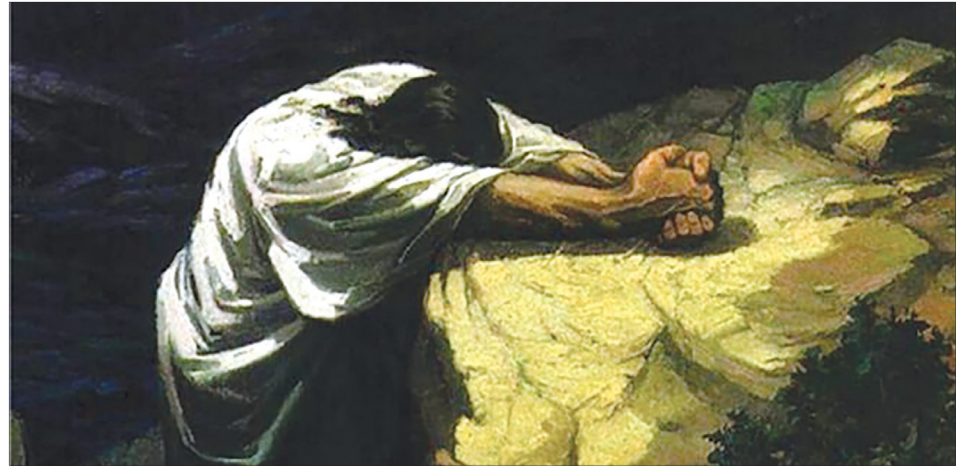


이 거의 없으며 지극히 내향적이었다고 생각하는 한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술 먹는 자리에 늘 함께하면서 호탕하고 농담도 잘하시고 사람을 잘 사귀는 외향적인 타입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한다. 그분은 허기와 갈증, 피로를 느꼈다.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도 맛보셨다. 즐거워하셨고 자주 기뻐하셨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보며 애 통히 여기셨고, 죄에 노예가 된 상태에 빠진 자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그분의 삶을 지켜봤다. 아무도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단순한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육신에 입고 오신 그들의 주요 하나님이었다.

제목부터 참 매력적이다. <우리 주님의 감정생활: The Emotional Life of Our Lord>, 저자는 더욱 매력적이다. B. B. 워필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결심한 순간부터, 당시 거대한 자유주의 신학의 파도를 거스르며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 복음주의 신학을 지켜낸 미국 최고의 신학자이다(1851-1921).

이 책의 서문을 쓴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보화’와도 같다. 우리 주님의 다양한 감정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간과하는 주제다. 그로 인해 그들은 복음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놓쳐 버리는 잘못을 저지른다. 우리 주님은 참된 인간이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11쪽).” 퍼거슨은 칼빈 이후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연구서로서는 이 책이 최초라고 말한다. 워필드는 특별히 주님의 동정심(공휼하심), 분노(공의로우심), 기쁨에 주목한다. 복잡미묘한 인간의 감정을 모두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이 자주 언급하는 주님의 감정을 꼽은 것 같다. 그리고 각각의 감정은 우리처럼 절제되지 못한 형태로 나타난 적이 없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거나 선하신 계획에 반항하는 모양으로 표출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감정과 같아 보이면서도 매우 다르다.

우리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타당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강한 감정 자체를 죄로 착각하거나, 반대로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면죄부를 쉽게 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감정생활은 우리에게 새 사람의 본을 제시하고 동시에 참된 위로를 건네준다. 우리는 주님처럼 자비와 공휼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불의를 볼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적어도 내가 책임지는 삶의 영역에서 불의를 몰아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기뻐해야 한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십자가를 앞두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힘써 기도하시는 예수님. ©freebibleimages.com

한다. 이런 감정생활은 우리가 스스로 영위해 나가야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앞서 보이신 주님의 감정생활을 뒤따르는 것이다. 주께서 하셨으니, 그분의 영으로 새사람이 된 우리도 주를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할 때마다, 그러니까 절제되지 못한 감정을 표출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감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조절하지 못한 감정의 강력한 힘을 경함해 보셨고, 이기셨다는 사실에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개혁된실천사에

서 출간하고 있는 기독교 고전 소책자 시리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짧은 역사적 글의 보존 ②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영적 자원 전달.

<우리 주님의 감정생활>은 이 목적들처럼 보존할 만큼 가치가 있는 책이다. 독자에게 우리 감정을 누구보다 잘 위로해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처럼 감정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조정익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우리 주님의 감정생활

B. B. 워필드 | 조계광 역 |

개혁된실천사 | 124쪽 |

9,000원

B. B. 워필드는 이 고전적인 글에서 성경 곳곳에서 표출되는 예수님의 복합적인 감정들을 면밀히 살펴본다. 이는 의로운 분노, 사랑, 슬픔 등의 감정을 포함한다.

이 책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류의 슬픔을 어떻게 지셨고, 오늘날에는 신자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지 보여준다. 한마디로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대단한 책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성경은 명백히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부정하면 이단으로 정죄받는다.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미혹하는 말을 분별하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요일 4:2-3).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람들 각자의 생각이 무척 다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국가정보요원처럼 과묵하고 감정 표현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14

For by one sacrifice he has made perfect forever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HEBREWS 10:14

2023. 11. 24  
Y.H

# 뉴 해피 오토 바디

## NEW HAPPY AUTO BODY, INC.



**HAPPY AUTO COLLISION CENTER**  
해피오토 바디샵  
3620  
323-731-4700



**Tel. (323)731-4700**  
362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9

###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차를 아무곳에서나 맡기지 마세요!**  
고객님들을 위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로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작업과 서비스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미야자키 하야오 (2)

#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로 보는 교회의 공동체성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 해체,

교회 복음화 노력에 큰 장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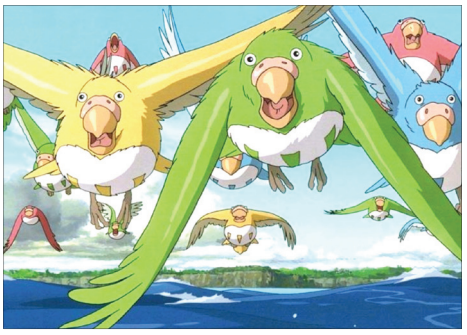
한국교회, 기독교 고유 공동체

◆일본의 부덕함: 전범국의 군국주의와 파쇼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의식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감독 본인이 몸소 겪은 일본 사회의 변화에 대한 감상과 문제의식을 담은 작품이다.

이 애니메이션 안에는 미야자키 감독 본인이 태평양 전쟁 당시 겪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한 기억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식 이면 세계, 그리고 요괴와 정령의 존재를 믿는 일본의 전통 신토사상이 오묘하게 뒤섞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작품 서사 속에서 눈여겨 볼 점은 주인공 마키 마히토의 가정형편이다. 마히토의 아버지 마키 쇼이치는 미야자키 감독의 실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전투기 부품을 제작해 공급하는 공장을 운영하며, 친어머니 히사코는 미군의 공습에 의해 발생한 대형 화재에 휘말려 병원에서 사망했다.



일본 제국 시절 전체주의의 광기와 어리석음에 함몰된 대중을 상징하는 앵무새들.

어머니의 사망 후 아버지는 일본의 전통 풍습에 따라 아내였던 히사코의 친동생 나츠코와 새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곧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마히토의 집안에는 저택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하녀 할머니 7명과 하인 할아버지 2명이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은 마히토를 많이 아끼고 정성스럽게 돌봐준다. 주인공 마히토는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이모이면서 새어머니인 나츠코에 대해 별다른 악감정은 없다. 다만 새로 태어날 이복동생에 대해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낀다. 이세계로 넘어가기 전 마히토의 심정은 새롭게 재편된 가족구조에 대한 약간의 혼란과 반감이 뒤섞여 있다. 그러나 이세계에 진입해 여러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마히토는 젊은 시절의 친어머니와 하녀 할머니를 만나 도움을 얻고, 이세계로 납치된 이모 나츠코를 구해내는 경험을 하면서 가족애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다. 가족 간 관계가 항상 애정이 넘치는 관계일 수만은 없지만, 커다란 고난과 위기

앞에서 가족애만큼 힘을 주는 것은 없었다는 미야자키 감독의 생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태평양 전쟁과 같이 추악하고 부당한 전쟁 상황 속에서 미야자키 감독이 생동감 있게 그려낸 가족애의 힘은 더욱 크게 돋보인다. 파쇼 군국주의 광기로 전쟁을 일으켜 전쟁 상대국 국민뿐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막대한 피해와 심적 고통을 안겨준 일본 제국에서 일본인들의 정치적 윤리관념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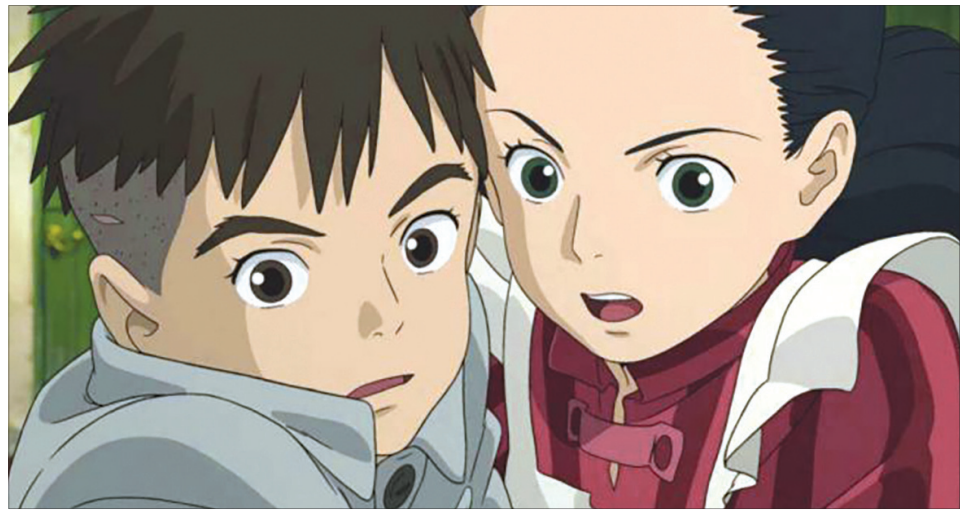
일본 국내로 보면 당시 정부 방침에 충실히 따르며 전쟁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의무였겠지만, 그 의무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국제사회에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되고 말았다. 작중 마히토 가족이 겪는 위기와 마히토의 심적 갈등 원인 가운데는 바로 이 태평양 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쟁은 마키 집안 부(富)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마히토의 어머니를 죽게 하고 마히토가 시골로 피신해 각종 어려움을 겪게 만든 원인이다. 마키 일족을 비롯한 당시 일본 국민 전체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자국 일본이기에 전쟁의 부당함과 해악을 직접적으로 성토했을 수 없는, 윤리 기준이 무너져 버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

이는 실제로 미야자키 감독이 어린 시절부터 자국 일본의 군국주의와 집단주의를 극도로 혐오하게 된 주원인이었다. 어린 시절 미야자키 감독은 전범국인 자기 나라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혐오스러워, 일본 노래 대신 러시아 민요를 부르고 다녔다고 소회한 바 있다.

◆일본의 미덕: 일본 고유의 가족애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존중

미야자키 감독은 일본의 정치를 병들게 한 군국주의 및 파쇼 전체주의를 혐오하였지만,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일본의 전통과 문화 그 자체를 부정하며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군국주의와 전체주의의 광기를 견어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일본인 고유의 미덕을 찾아내려 했다.

그가 찾아낸 일본의 미덕은 일본 특유의 형태로 전래되는 가족애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자연 만물에 대한 종교적 존중이었다. 이 두 가치는 그의 작품 전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표현된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미야자키 감독이 바라보는 현대 일본의 문제와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헤이세이 버블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의 일본에는 특이한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전까지 일본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집단주의 성향이 우세했다. 하지만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사회는 공적 사회나 기업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집단주의가 우세하지만, 가족이나 개인 생활과 같은 사



지브리 스튜디오의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적 영역에서는 점차 개인주의가 우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더 이상 일본식 집단주의가 개인의 생계와 사회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데 대한 자각 때문이기도 했고, 결혼 감소와 출산 감소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립됐기 때문이다. 미야자키 감독의 눈으로 볼 때, 일본 제국 시절의 전체주의를 이어받은 일본의 집단주의는 구시대의 적폐였다. 하지만 가족과 지역 공동체를 뿌리부터 해체시키는 극단적 개인주의 역시 일본 사회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미야자키 감독의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상호 배려와 존중, 애정에 바탕을 둔 공동체 의식이나 가족애를 강조하며, 이 점이 그의 작품을 명작 반열에 올려놓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확인되는 미야자키 감독의 일본식 가족애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존중은 우리 한국 관객들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되던 시기와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및 사회 분위기는 여러 방향으로 유사하다. 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급격하게 해체되고, 1인 가구 급증과 함께 사적 영역에서 점차 집단주의 성향이 사라져가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혼인율로 가족애라는 것이 아예 성립될 근간 자체를 상실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은 기독교 복음화에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과거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집단주의 성향은 한반도 복음화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신앙을 근간으로 삼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의 삶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간섭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모임이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올바른 점은 서로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정지해 고쳐가는 방식으로 각자의 사생활을 다소간 포기하고 삶 전체를 교회라는 공적 영역과 공유해야 한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이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훈련된다. 반대로 공동체 의식이 허물어진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긴다. 복음의 내용이 어떤지 알아보기 전에, 공동체 생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복음화의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극단적 개인주의이다. 미야자키 감독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 극단적으로 개인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풍조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공동체적 가치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힘쓴다. 사실 이는 일본 대중문화의 한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의 노래 가사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말, '혼자가 아니야 (ひとりじゃない)'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일본 콘텐츠 제작자들의 고민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국 대중문화 작품에서 이런 진중한 문제의식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사회 공동체 의식의 해체는 복음화 노력에 큰 장애물이다. 그리고 대중문화 콘텐츠의 메시지를 살펴볼 때, 한국은 이 문제 요인을 극복하려는 의식이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한국교회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기독교 고유의 경건한 공동체성을 지혜롭게 소개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나름의 문화전통과 종교성을 가지고 공동체성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훨씬 더 강도높게 가족구조와 공동체적 결속이 해체되고 있는 한국에서 교회가 이런 노력을 등한시하면, 향후 한국교회는 전도 활동의 결실을 맺기가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박욱주 박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낙원

최고의 맛과 품위를 드리는

# 캐더링

**각종 모임과 단체행사 파티의 고민!**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캐더링이 책임지겠습니다.

Outcall Wedding Consultation  
Custom-made Decoration Service






- 결혼피로연 - 음식배달서비스일체
- 교회 행사 - 창립기념일 및 임직식
- 각종모임, 파티음식 (10인이상 환영, 향우회, 동창회 개업식 축하기념식 크고 작은 모임)

- 생일 돌잔치 회갑연 - 전문 요리사
- 출장 즉석 갈비구이 - 야외 파티시

**낙원캐더링** | 323-466-3737

NAKWON CATERING | 456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www.nakwoncateringla.com

낙원캐더링의 차별화된 테이블 서비스로 고급 분위기 연출



# 홈쇼핑월드 블랙 프라이데이 폭탄세일

세일 기간 | 2023.11.22(수)-11.28(화)

## 불경기 타파, 원가이하 폭탄세일!!

<p>동성제약 <b>실키치약</b> 120g <del>\$5.99</del> <b>\$5.00</b></p>	<p>1+1 완도 <b>건미역</b> 200g <del>\$9.99</del> <b>\$6.99</b></p>	<p>Immune-11 면역력 향상제품 60캡슐 <del>\$49.00</del> <b>\$10.00</b> *1인 5병 한정</p>	<p>완도 <b>곱창김</b> 160g <del>\$24.99</del> <b>\$14.99</b></p>
<p>6제로 플러스 <b>강아지 사료</b> 2kg 연어&amp;양&amp;소 시니어 <del>\$29.99</del> <b>\$19.99</b></p>	<p>6제로 플러스 <b>강아지 사료</b> 2kg 연어&amp;양&amp;소 전연령 <del>\$29.99</del> <b>\$19.99</b></p>	<p>소백코리아 <b>홍삼절편</b> 10본 <del>\$54.99</del> <b>\$24.99</b> *1인 3박스 한정</p>	
<p>동원 <b>산삼배양근</b> 1박스 <del>\$99.00</del> <del>\$89.00</del> <b>\$25.00</b></p>	<p>안심고급 <b>전기요</b> M_100*180cm (+-3) <del>\$129.00</del> <b>\$74.00</b> EMF 전자파 차단 열선 사용</p>	<p>안심고급 <b>전기요</b> L_135*180cm (+-3) <del>\$139.00</del> <b>\$79.00</b> EMF 전자파 차단 열선 사용</p>	<p>지리산 <b>상황버섯</b> 1박스 <del>\$190.00</del> <b>\$90.00</b></p>
<p>몽크로스 <b>양모이불</b> Small <del>\$289.00</del> <del>\$189.00</del> <b>\$100.00</b></p>	<p>몽크로스 <b>양모이불</b> Queen <del>\$319.00</del> <del>\$219.00</del> <b>\$120.00</b></p>	<p>몽크로스 <b>양모이불</b> King <del>\$349.00</del> <del>\$249.00</del> <b>\$140.00</b></p>	

## WOW 인기상품 앵~콜 세일!!

<p>옷장 <b>탈취제</b> 1개입 <del>\$2.99</del> <b>\$1.00</b> *1인 10개 한정</p>	<p>락티슈 160매 1박스 \$4.99 3박스 <b>\$1.66 \$4.99</b></p>	<p>전복 김치 볶음밥 250g <del>\$6.99</del> <b>\$3.99</b></p>	<p>전복 해물 볶음밥 250g <del>\$6.99</del> <b>\$3.99</b></p>
<p>완도 <b>광어죽</b> 320g <del>\$7.99</del> <b>\$4.99</b></p>	<p>완도 <b>전복죽</b> 320g <del>\$7.99</del> <b>\$4.99</b></p>	<p>옛날 <b>짬아찌</b> 각각 명이나물, 마늘쫑, 샐러리, 깻잎, 고추 <del>\$9.99</del> <b>\$5.99</b></p>	

**홈쇼핑월드 HOME SHOPPING WORLD**  
 • hsw.us.com  
 • youtube.com/tvkoa

**LA 올림픽지점 (213)380.3330/3307**  
 3071 W. Olympic Blvd, LA, CA 90006  
 올림픽 + 아드모어 (구 리운성 자동차 자리) **자통 주문 전화 1-855-818-0050**

**OC 부에나파크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 + 멀번 BANK OF HOPE 몰 **자통 주문 전화 1-855-818-0050**

\*광고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매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nge